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험에 의한 노마디즘의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홍 지 희

경험에 의한 노마디즘의  
표현 연구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노 주 환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홍 지 희

# 인 준 서

홍지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4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사람들의 관념은 외부환경과의 경험과 소통을 통해 형성된다. 다양한 경험으로 형성된 관념 중에는 오래되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념일수록 변하지 않고 고착되어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철학자 질 들뢰즈는 이런 고정된 도식으로부터 탈피와 개념의 재구축을 말하였다. 고착된 관념에서의 탈주는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사유방식과 행동방식에 안착되기를 거부하는 노마디즘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본 연구는 본인의 경험에서 시작한 사적인 작업을 통해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노마디즘과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도구화된 자연에 자연성과 야생성을 돌려주는 표현방식은 고착된 관념과 인식을 무너트려 자연환경의 회복을 지향하고 유목적 사유가 주는 탈주의 즐거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이동성은 본인의 내적세계관을 투여하기에 좋은 소재가 되었으며 새로운 영토를 만날 수 있게 하는 통로이자 새로움을 욕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동성은 본인의 작업에서 유동적 성질을 가지게 하여 정체성을 변화하게하고 고정된 것의 본질을 바꾸며 횡단적 욕망을 생성시킨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에서 집 형상이 처음으로 나타난 시점인 2007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작업을 중심으로 시간의 흐름 순으로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에 대한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작품 제작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들뢰즈, 가타리의 노마디즘과 생태주의의 사상적 특징을 설명하고, 노마디즘과 생태주의의 관련성을 서술하였다.

2. 본인의 작품을 바탕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목’과 ‘움직이는 유목’을 통해 노마디즘의 끊임없는 이동과 탈주를 보여주고, 이동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그 의미가 가진 중복적인 양상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서술하였다.

3. 작품분석에서는 작품과정과 기법, 재료, 의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앞으로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                         |    |
|-------------------------|----|
| I. 서론 .....             | 1  |
| II. 본론 .....            | 3  |
| 1. 작품형성배경 .....         | 3  |
| 1) 들뢰즈, 가타리의 노마디즘 ..... | 3  |
| 2) 생태주의의 사상적 특징 .....   | 4  |
| 2. 작품 표현연구 .....        | 7  |
| 1) 움직이지 않는 유목 .....     | 7  |
| 2) 움직이는 유목 .....        | 9  |
| 3) 이동에 의한 생태적 관점 .....  | 10 |
| 4) 생태학적 사유의 영토들 .....   | 14 |
| 3. 작품분석 .....           | 17 |
| III. 결론 .....           | 38 |

## 참고도판

## 참고문헌

## ABSTRACT(영문초록)

## 작 품 목 차

|         |  |          |
|---------|--|----------|
| 【작품 1】  | draw an essay, 나무, 칠판페인트, 분필, 500x500x1200(mm), 2007 | · 17     |
| 【작품 2】  | 마음의 바람, 유리, 천, 스텐, 나뭇잎, 조개, 400x400x1500(mm), 2009   | 19       |
| 【작품 3】  | daydreaming, 털실, 굵은 철사, 500x1700x700(mm), 2008       | ····· 21 |
| 【작품 4】  | blue house, 털실, 3000x3800(mm), 2007                  | ····· 23 |
| 【작품 5】  | 이동하는 집, 사암, 스텐, 바퀴, 300x300x800(mm), 2009            | ····· 25 |
| 【작품 6】  | 다른곳에 심겨지기 위한 준비, 포장밴드, 바퀴, 가변설치, 2011                | 27       |
| 【작품 7】  | flow, 시멘트, 바퀴, 150x150x230(mm), 2011                 | ····· 30 |
| 【작품 8】  | 부유하는 돌, 시멘트, 바퀴, 가변설치, 2013                          | ····· 32 |
| 【작품 9】  | Monster Plant, 포장밴드, 바퀴, 가변설치, 2011                  | ····· 34 |
| 【작품 10】 | plan plant planet, 포장밴드, LED, 바퀴, 가변설치, 2012         | ····· 36 |

# I. 서론

사람들은 경험적 존재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 성장한다. 본인의 어릴적 잦은 이사경험은 정체성에 영향을 받았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성되었다. 여러 공간을 자신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은 공간도 사람처럼 공간만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닌 유연한 것으로 외부와의 경험에 의해 변화한다. 이러한 경험은 집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공간에 대한 유연성을 주었고 이러한 변화하는 인식은 노마디즘(nomadism)<sup>1)</sup>과 관련이 있다.

다양한 경험으로 형성된 관념 중에는 오래되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관념일수록 변하지 않고 고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관념은 뇌리에 깊게 주름 잡혀 ‘홈 패인 공간’<sup>2)</sup>으로 진화한다. 홈 패인 공간은 정확하고 명쾌한 결론만을 고집하므로 코드화된 관념은 헐리기 전까지 영원히 땅위에 뿌리박혀 고정되어있는 정주적(定住的)<sup>3)</sup>인 집을 생각하게 한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성질은 깨지기 쉽다.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홈 패인 고착

- 
- 1) 정주민의 사유방식과 대립하는 유목민적 사유방식을 말한다. 정주민과 유목민은 사회형태, 기호질서, 예술, 공간의 존재방식 등 다양한 차이를 나타낸다. 정주민이 안팎의 구별이 분명한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 반해 유목민은 정주공간의 넓은 초원과 사막 또는 빙원의 노모스(nomos)적 개방공간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전자가 체계적인 국가를 형성하는 데 반해 후자는 부정부적인 전쟁기계를 형성한다. 전자의 사유방식이 편집증(parano)적이고 수목(tree)적인 데 반해 후자의 사유방식은 분열증(schizo)적이고 리좀(rhizome)적이다. 전자가 중앙집권화 된 권력구조를 추구한다면 후자는 이에 부단히 대항하고 그것으로부터 도주하며 자유롭게 표류하려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마디즘은 노마드의 욕망표류를 위한 전쟁기계론이기도 하다. <출처 : 이광래 저, 「표류하는 미술, 미술가들」, 미술문화, 2007, p 271>
  - 2) 홈 패인 공간 : 매끄러운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닫힌 공간, 구체적인 공간, 특정한 질서가 각인된 공간, 코드화된 관념 등을 의미한다.
  - 3) 정주(定住) :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삶.

된 관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념이 사회전반에 깔려있음을 인식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한 유목적 사유에서 출발하여 이분법적 구조로 나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통한 환경의 모습이 작품에 반영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고착된 관념을 전환해줄 노마디즘의 태도가 작품형태에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관련을 가지며 진화해 왔는지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작품을 분석하였다.

## II. 본 론

### 1. 작품형성배경

#### 1) 들뢰즈, 가타리의 노마디즘

동물의 본성은 이동성(mobility)에 있다. 이에 비해 인간의 (동물적) 본성은 유목성(nomadism)이다. 다른 동물보다 인간의 이동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주민(homo residens)이 아닌 유목민(homo nomos)이었다.<sup>4)</sup>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주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의 이미지는 변함없이 한곳에 영원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과 집을 상상하기 마련이다. 부모가 변하지 않듯이 고향 또한 변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힌트와 암시를 주고는 한다. 이름, 성별, 나이 그리고 출생지를 보면 대략 그 사람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뿌리는 중요성을 가진다. 하지만 사람은 한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더욱 다양한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세상을 만난다. 새로운 집단에 속하고 동시에 또 다른 집단에 속하며 각 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도 한다. 그러한 외부경험이 늘어나면서 점점 그 사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결국 출생지와 기본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추측은 무의미하다. 다양한 경험은 사람과 사람의 차이와 다양성을 만들어주는 통로이다. 어떤 경험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한다.

노마디즘은 유목론이라고 번역되며 유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거처를

---

4) 이광래 저, 「표류하는 미술, 미술가들」, 미술문화, 2007, p. 237

정하지 아니하고 물과 풀밭을 찾아 옮겨 다니면서 목축을 하여 생활하는 삶'이라 한다. 질 들뢰즈(Gilles Deleuze, 1925-1995)와 펠릭스 가타리(Felix Guattari, 1930-1992)가 말하는 유목민은 거처를 옮겨 새로운 목초지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사람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 이주하는 사람과는 다른 개념이다. 유목민은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창안하는 사람이며 떠돌이가 아닌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향해 탈영토화하고 재영토화하는 새로운 지식의 추적과 경험을 향해 유목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의 방식에 변환을 주면서 전혀 뜻밖의 창조적인 방향을 만드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만을 두고 보았을 때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떠올리기 쉬우나 장소와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유의 이동도 포함하는데 이는 본인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다른 세계와, 다른 관념, 다른 존재방식을 찾아 움직이지 않고 유목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들뢰즈, 가타리가 말하는 노마디즘의 정의이다. 즉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가치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나가는 철학적, 예술적 경향을 뜻한다.

## 2) 생태주의의 사상적 특징

움직이지 않는 유목은 현대적인 양상에서 발견되는데 인터넷 환경이 바로 그것이다. 점차 물과 공기 같은 유비쿼터스(ubiquitous<sup>5)</sup>)의 경로에 진입하여 영역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유목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목성은 본능적이고 생득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발달로 점차 동시편재적으로 더 쉽게 더 빠르게 경계를 넘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한다. 물리적으로도 경계를 넘기 위한 장치가 발달되고 많아지고 있는데

---

5) 유비쿼터스 (ubiquitous) :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것은 노마드(nomad)의 욕망을 반영한다. 노마드들의 욕망통로는 다리와 철교, 교통망과 수없이 얽혀있는 지하철 노선에서 드러난다. 노마드의 욕망은 점차 도시화를 부추긴 꼴이 되어 환경을 위협하게 되었다. 삶이 편해지고 발달되면서 그 생활방식에 적응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념이 고착되어 유목민에서 정주민으로 옮겨갔는데 지배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공간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자본주의에 포섭되면서 자연환경의 오염이 점차 심각해지고 생태주의는 생태위기의 해결방법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도시화는 노마드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 노마디즘은 생태주의의 사상적 특징과 많은 부분 유사하다. 환경 철학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한 가지는 인간중심주의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생태중심주의로 인간과 자연의 상하구조 없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관점이다. 인간중심주의는 서구적 근대의 커다란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거대한 오늘날의 문명을 건설한 서양 근대정신의 기본 도식은 중심에 인간을 놓고 자연을 그 둘레에 배치하는 것이다. 그 둘레에 있는 것을 '환경'이라고 한다. 중심의 주변에 있는 것은 중심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환경이란 지배자 인간의 조작을 기다리는 도구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야 이 도식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sup>6)</sup>

생태중심주의는 인간중심주의와 달리 중심이 비어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배적인 중심이 없으며 서열구조가 없는 차이들만 존재하는 수평적인 다중심구조이다. 생태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사상을 의미한다. 생태중심주의는 보는 시각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심층생태주의는

---

6) 이성희 저, 「무의 미학」, 새미, 2008, p. 266

모든 생물은 평등하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상으로 공생의 원리추구와 인간과 자연의 동등한 가치를 추구한다. 두 번째, 사회생태주의는 복종과 명령에 관한 전통적, 심리적 체계로써 위계와 지배는 ‘계급이 없는’ 혹은 ‘국가 없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지배의 유형에는 아이에 대한 어른의 지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어떤 인종에 대한 다른 인종의 지배, 대중에 대한 관료주의의 지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배, 심리학적 의미로 말하면,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 정신에 대한 피상적인 도구적 합리성의 지배 등 있다.<sup>7)</sup> 세 번째, 여성생태주의는 여성과 자연 사이의 공통점을 생태사상 차원으로 이끌어낸 이론으로 여성학과 생태학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과 자연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사회로 대입시켜 수동적인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즉, 여성생태주의란 인간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류가 남성중심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여성생태주의는 산업사회의 문제들을 극복해나갈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생태계의 위기와 여성의 억압을 동일한 문제로 이해하며 자연지배와 여성지배사이의 연관성에서 출발하여 정치, 경제, 그리고 자연을 위협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저항하고, 이러한 관점을 무너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목주의란 사회적으로 코드화된 사유방식과 행동방식에 안착되기를 거부하는 비판적 의식을 지칭한다.<sup>8)</sup> 자연을 “관리”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마디즘의 태도는 이러한 생태주의와 같은 탈 근대적 운동의 경향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는 본인의 작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7) 조용개 · 유영익 · 정철 공저,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3, p. 299

8) 로지 브라이도티 저, 「유목적 주체」, 여이언, 2004

## 2. 작품 표현연구

### 1) 움직이지 않는 유목

본인의 어릴적 잦은 이사를 다닌 경험은 공간에 대한 유연성과 함께 집<sup>9)</sup>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사람에게 집이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적인 공간이다. 텃세권을 가진 동물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과 습관으로 집의 공간을 매워놓는데 시간이 쌓이면서 남과는 다른 특수성이 생겨난다. 집은 우리의 시간을 반영하므로 이 특수성은 집에 사는 사람의 영역임을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때문에 누군가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간은 어떤 개인과 구성원의 정체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살던 사람이 집을 떠나면 이전의 흔적과 특수성은 사라지고 낯선 빈공간이 남을 뿐이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빈공간은 다시 타자(타인, 동·식물, 혹은 시간)와의 접촉을 통해 또 다른 정체성을 반영하게 된다. 공간은 그저 텅 빈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 접촉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기계(machine)<sup>10)</sup>’이다.<sup>11)</sup> 이러한 변화는 본인에게 공간의 성질이 늘어나고 뒤틀리는 유연성을 가지게 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정확한 기억과 물리적인 변화 때문이다.

본인의 작업에서 집 형상이 최초로 사용된 <draw an essay>(2007, 작품 1)는 철판의 특성을 가진 집 형상으로 표면에 그림이 그려지고 지워지는 과정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집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는 하나의 공간이 다양

---

9) 집은 토지에 종속하는 정착물이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가 갖는 특성을 함께 가진다.

10) 들뢰즈와 가타리의 ‘기계’ : 절단하고 채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

11) 고미숙 저,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휴머니스트, 2004, p. 33

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잠재성을 보여준다. 집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에서도 다양한 정체성의 획득이 가능할 수 있음을 <다중인격>(2007, 도판 1)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한 개인의 유연한 정체성은 부정적으로 보면 자아의 혼란스러운 내적갈등을 나타내지만 역으로 보게 되면 나(‘자아’)란 무엇이든 될 수 있는(할 수 있는) 잠재성의 존재임을 의미한다.

<무제>(2008, 도판 2)와 <마음의 바람>(2009, 작품 2)은 무거운 재료로 만든 부동적인 집 형상에 천을 덮음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획득한다. <무제>의 연두색 천은 집안의 뿌연 유리창을 통해 투과되어 들어오는 바깥 환경에 대한 경험적 색깔이며 <마음의 바람>의 찢어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는 천은 집 형상을 가리면서도 내부가 드러나는 열린 특성(닫혀있지만 의미상의 열림)을 가지며 바람에도 쉽게 움직이는 감응성(感應性)을 보여준다.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집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환경에 의해 민감한 변화를 보여주는 작업이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바다로, 산으로 여행을 가고, 책과 인터넷을 통해 바깥세상을 알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daydreaming>(2008, 작품 3)은 검은색 털실로 짜여있는 길쭉한 집 형상으로 늘어나고 뒤틀린 과장된 형태는 기분에 따른 감정과 느낌 혹은 착각이 기반에 깔려있는 가상적인 변화이다. 형태의 방향성 때문에 벽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움직임의 요소(무빙이미지)를 가져 공간의 유연적 성질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draw an essay>, <다중인격>, <무제>, <마음의 바람>, <daydreaming>은 물리적 이동 없이도 관념의 유목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움직이지 않는 앉아서 하는 유목은 창조적인 욕망의 하나이다. 이를 가리켜 어느 소설가는 앉아서 하는 산책이라 하였다. 이처럼 노마디즘은 탈영

토화, 재영토화를 순환하며 끊임없는 이동과 탈주의 의미를 가지는데 물리적, 지리적 이동뿐만 아니라 관념, 사유, 정신의 탈주까지 포함한다.

## 2) 움직이는 유목

앞의 작업들은 정주적인 집에 시점을 두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유목’ 이라면 이후의 작업들은 정주성을 잃은 ‘움직이는 유목’ 이라 할 수 있다.

이사 후에 시간이 흐르고 적응을 하면 낯선 집은 이전에 살았던 집의 특수성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이동을 통해 주위환경이 바뀌었지만 본인의 습성은 바뀌지 않아 집은 이전모습과의 유사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같으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진 이러한 변화는 어린 시절의 본인에게 이전의 집을 그대로 가져온듯한 착각을 심어주어 집전체가 이동하여 옮겨지는 관념을 심어 주었다.

<blue house>(2007, 작품 4)는 집전체가 이동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의 가볍고 유연한 성질을 이용하여 어느 곳에서나 장소성에 맞게 집을 짓는 거미처럼 나무에, 실내에, 외부에, 흙 패인공간은 물론이고 매끄러운 공간<sup>12)</sup> 등 고원을 넘나드는 다양한 설치가 가능하다. 여행을 가서 제작하는 방식에서 작업의 의미와 작업의 제작과정이 일치하는 작업으로 그야말로 노마디즘적 행위를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유목하려는 횡단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들뢰즈에게 횡단성은 노마드의 ‘도주의 선’과 맞닿아 있다. 독립한 개인들은 꽃에서 꽃으로 찾아가는 횡단적 곤충인 벌처럼 욕망을 옆으로 연결하는 도주의 선이 곧 욕망의 횡단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노마드가 폐쇄된 것으로부터 외부로 도주하는 경로, 즉 유목의 단서이기도 하다. 들뢰즈는 횡단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나중에 거미줄로 대치한다.<sup>13)</sup> 집전체가 이동한

12) 매끄러운 공간 : 흙 패인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열린 공간, 추상적인 공간, 탈 중심적 공간, 탈 코드화 관념 등을 의미한다.

다는 단순한 발상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Floating Nest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Floating Nest-japan>(2010, 도판 3), <Floating Nest-집들이>(2010, 도판 4), <Floating Nest-순천>(2013, 도판 5)등의 연작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거미줄은 공간성과 설치방법에 따라 다른 감정과 특수성을 보인다.

거미줄 작업은 <이동하는 집>(2009, 작품 5)의 형태를 도출하게 한 작업으로 본인의 작업에 중요한 연결점을 가진다. <이동하는 집>에서 현재까지도 적극 사용하는 재료인 바퀴를 최초로 사용하게 된다. <이동하는 집>에 바퀴가 달려있어 집전체가 이동하는 무빙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직접 손잡이를 잡고 집 전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관객의 체험으로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며, 정주성과 무거움의 본질이 동시에 무너진다. <이동하는 집>은 마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캠핑카가 연상된다. 여행은 인간이 지닌 본능적 욕망의 표출이며, 노마드적 탈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순환의 연속인 것이다.

### 3) 이동에 의한 생태적 관점

이동은 낯선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운 장을 형성한다. 이동을 통한 새로운 환경과 장소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는 본인의 모습에 대해, 반대로 본인의 개입에 의해 변화하는 주위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도시의 자연환경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다른곳에 심겨지기 위한 준비>(2011, 작품 6)는 나무가 잘리지 않고 다른 곳에 심겨졌으면 하는 계기로 제작되었다. 즉물적으로 존재했던 거대한 나무가 하룻밤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땅위에 영원히 있을 것 같았던 존재의 상

---

13) 이광래 저, 「표류하는 미술, 미술가들」, 미술문화, 2007, p 283

실은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모든 것에 대한 본질을 의심하게 되었고 도시의 자연물에 대한 생태학적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생태학(ecology)’의 어원은 ‘오이콜로지아(oekolog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이 단어는 ‘오이코(oeko:집)’이라는 단어와 ‘로지아(logia:연구,학문)’라는 단어가 한데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서, 이러한 단어의 조합 방식에 의해 그 의미를 추정해 보면 ‘생태학’이란 ‘집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집을 좁게는 개체가 사는 환경으로 넓게는 우주 전체를 지시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생태학’이란 우주와 자연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sup>14)</sup>고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집 형상의 작업에서 유동성을 획득한 자연물로의 작업변화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뿌리가 있어야 할 풀들은 뿌리대신 바퀴가 달려있음으로써 유동성을 획득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지만, 뿌리가 없다는 것은 고향과 집이 없는(homeless) 무언가 상실된 느낌을 준다. 뿌리가 없는 식물이 떠돌아다니며 공간을 부유하는 것은 어디론가 가야만 할 것 같은 불안성을 가진다.

본질의 탈피는 새로운 형태와 개념을 낳게 된다. 뿌리가 없는 풀의 이동성 허용은 도시의 제약에 억눌린 자연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식물은 자신의 본질 (부동성)에서 탈피하여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초원을 누비며 살 수 있는 자율성과 야생성을 획득하고 땅속 어디로나 스스로 번식해 나가 보다 주체적이고 자유롭게 공간을 누비며 유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때문에 본인의 작업 풀 형상이 자유롭게 멋대로 자란 듯한 불규칙한 느낌은 인간의 손에서 벗어나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성을 표현하고 있다. 즉 풀 형상은 이동과 탈주를 포함하는 노마디즘의 기표이며 노마드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동성의 허용은 인간이 자연보다 위에 있다는 현대인의

---

14) 구자희 저,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p. 34

관념에 걸맞은 수동적 형태로 전락하는 의미로 작동하여 오히려 인간에 의해 이동이 용이해 졌다. 도시의 건물 테두리에 일정한 배열로 심겨진 똑같은 형태의 상품화된 자연물은 계획적으로 찍혀 나오는 공산품 같이 무미건조해 보인다.

자연은 점차 인위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어 도시의 생태공원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공원이 아니다. 먼저 형성된 자연에 맞게 주거가 조성되었던 동양의 가치는 사라지고 건물이 먼저 지어지고 형평성에 맞게 자연환경이 후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선은, “유동성과 이동성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관심은 이동성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든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어릴 적 경험에서부터 출발한다. 작가는 어릴 적 잦은 이사로 인한 주변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공사현장에서 무차별하게 뜯겨진 풀, 마구잡이로 파헤쳐진 돌의 참혹한 현장을 보며 이동성의 결과로 생긴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내기 시작한다. 작품은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의 이동성과 자연 파괴와 환경에 대한 경시를 표현한 이동성을 함께 다루고 있다.”<sup>15)</sup> 고 하였다.

도시의 형태는 통제 권력에 의해 형성되므로, 바쁜 도시의 사람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사람도 도시의 수동적 자연물처럼 수동적인 형태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바퀴달린 작품들을 바라보았을 때 수동성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일 것이다.

환경엔 우리의 시간과 관념이 반영되는 것처럼 도시의 가시적인 환경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 가치관과 생활습관에 영향을 준다. 도시의 부속물인 엘리베이터, 지하철, 빌딩 속의 사람들은 무미건조하고 표정 없는 일률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도시의 가시적인 이미지 때문에 자연을 공산품으로 인식하여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생활습관을 가지게 되는 셈이다. 도시의 인공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서로가 서로를 자신이

---

15) <http://blog.naver.com/galleryis?Redirect=Log&logNo=80188860112> 이경선 전시비평문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만든다.

오늘날에 환경이라는 개념은 환경파괴가 만들어낸 관련 상품의 상업화와 맞물려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상품화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인간중심적인 사고와 경제적 가치 내에서 환경을 바라보며 환경과 생태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sup>16)</sup>

인간은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원을 그리며 서로 이어져 있는 자연의 한 고리일 뿐이다. 그리고 중심은 지배적인 어떤 권력적 존재의 자리가 아니라 비어 있다. 그 곳은 수많은 고리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물망의 자리인 무(無), ‘빈 중심’이다. 하나의 지배적인 중심이란 없다. 그 고리 하나 하나들이 모두 하나의 중심이다. 우리는 이것을 생태중심주의라고 한다.<sup>17)</sup> 인간중심적인 사고관이 존재하는 한 영원하다고 믿고 있던 숲과 산은 개발의 명목으로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 건물을 짓고자 할 때 산은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산인 것이다.

세계를 도구적 연관에서, 유용성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세계는 파편화 된다. 우리가 자연을 도구(기계)나 이익을 줄 무엇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온갖 취사선택과 분별 작용을 통하여 자연을 기능적으로 분해하고 조립하게 된다(분해와 조립이야말로 기계의 특성이다).<sup>18)</sup>

<flow>(2011, 작품 7), <부유하는 돌>(2013, 작품 8)은 물 형상과 돌 형상에 바퀴를 부착한 형상으로 현대인들의 자연물에 대한 관념을 나타내는 작업이다. 공산품 같은 물 형상의 획일적인 사이즈는 자연물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척도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풀 형상과 물 형상, 돌 형상은 모두 산업문명의 산물이자 공장에서 가공해낸 플라스틱 밴드와 시멘트로 재현하는 표현방식으로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도시

16) 조영직 저, <폴드공간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 26

17) 이성희 저, 「무의 미학」, 새미, 2008, p. 266

18) 이성희 저, 위의 책, p.46

자연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 보여준다.

#### 4) 생태학적 사유의 영토들

우리는 버려진 땅이나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땅에서 풀들이 우우죽순 번식을 하며 땅을 점점 차지하며 번지는 속성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욕망에 유목성이 더해져 영토욕망이 나타난 시각적 변화이다. 식물과 땅이 접속해 복잡한 뿌리가 중심 없이 퍼져나가 새로운 땅과 만나는 것이다. 이중혼합적으로 혼재한 채 다양하게 변용하고 증식하며 중심도 목표도 없이 사방으로 뻗어가는 고원, 예기치 않은 생의 우발적 흐름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이의 길'들<sup>19)</sup>, 다중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줄기의 생명이 땅이라는 막힌 공간을 파고 들어가 감자나 고구마를 만드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막힌 공간을 파고들어가 노마드 무리의 고원을 형성하는 것이다.<sup>20)</sup>

탈 코드화된 리좀적 공간이 자유롭게 연결되고 변화하는 생성적인 필드가 만들어 진다. 리좀<sup>21)</sup>은 다수다양체의 뿌리줄기로 들뢰즈는 땅 속 어디로나 번식해 가는 리좀을 가리켜 초원을 제멋대로 누비려는 노마드의 욕망 회로에 비유한다.<sup>22)</sup> 이처럼 리좀적 공간은 규정되지 않은 공간으로 타자와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수평적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영토를 개척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수직적 관계의 가족이 아닌 수평적 관계의 친구들이 만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형성해 3개월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는 일

19) 고미숙 저,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휴머니스트, 2004, p. 51

20) 장시기 저,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당대, 2005, p. 144

21) 리좀 (Rhizome) : 들뢰즈와 가타리의 공저 《천의 고원》에 등장하는 은유적 용어 혹은 철학 용어이다. 원래의 리좀은 뿌리줄기를 의미한다. <출처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22) 이광래 저, 「표류하는 미술, 미술가들」, 미술문화, 2007, p. 272

련의 작업 <집들이>(2010, 도판 6)는 3개월간의 흔적을 기록으로 남기고 마지막 일주일동안 기존의 화이트큐브 안에서의 전시가 아닌 집안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열어 사생활의 공간에 관객을 끌어드린다. 사람에게 휴식과 안전을 주는 집의 고정된 공간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기능이 생성된 공공의 장소가 공유되었다.

이러한 탈 경계에 대한 작업은 <별판을 가지다>展(2013, 도판 7)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한다. 작품의 설치에 경계를 없애면서 작품과 작품은 섞이게 된다. 일반적인 좌대 위의 하나의 작품이 아닌 바닥에서의 다수의 작품이 한데 섞여 전시장 안을 부유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경선은, “홍지희 작가의 전시장 안에는 드문드문 또는 무리 지어 펼쳐진 물, 풀, 돌의 형상들이 구별과 경계 없이 공간을 메우고 있다. 대상에 달린 바퀴의 자유로움과 이동의 편리함으로 그것들의 움직임은 가능해졌으며 허락된 것이다. 공간은 설치작품을 위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관객의 이동과 배회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관객의 움직임” - 작품을 발로 건드리는 행위, 작품 위에 앉는 행위, 또는 진입에 방해를 일으키는 작품을 치우는 행위- 은 관객을 작품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작품의 완성을 돕는다.”라고 평했다.<sup>23)</sup>

<Monster Plant>(2011, 작품 9), <plan plant planet>(2012, 작품 10)는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한 예기치 못한 생성을 보여준 작업이다. 이종혼합적인 혼재로 다양하게 변용되고 증식된 형상으로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표출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거나 이질적인 것들의 섞임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고 새로운 사유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며 그러한 삶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토를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유목은 창조와 생성이라는 개념에 관한 구체적 개념이다.<sup>24)</sup>

23) <http://blog.naver.com/galleryis?Redirect=Log&logNo=80188860112> 이경선 전시비평문

24) 엄윤정, <모바일 뮤지엄의 배경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개인과 사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소통방식을 생태학적 사유의 실천을 통해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서열구조와 이항관계 없는 차이들만 존재하는 수평적인 만남이야말로 리즘의 공간이 추구하는 접속이다. 서로 이질적인 것이 섞여있는 우연적인 배치 상태에서의 소통과 관계, 만남, 결합은 리즘에서 말하는 생산적인 사유의 영토를 찾게 해줄 융합의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 Ⅲ. 작품분석



【작품 1】 draw an essay

【작품 1】 draw an essay

크 기 : 500x500x1200(mm)

재 료 : 나무, 칠판페인트, 분필

제작연도 : 2007

제작과정 :

- 1) 집 형상을 만들 나무판을 절단한 뒤 순간접착제로 부착하고, 견고하지 못한 부분을 못질로 보강한다.
- 2) 거친 표면을 사포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 3) 칠판페인트를 붓으로 칠하고 마르면 3번 덧칠한다.
- 4) 분필로 집 형상 표면에 드로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휴지로 지워 다시 그린다.

본 작품은 고정된 집 형상이 타자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본인만의 공간이라고 알았던 집이 타자의 집이 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면서 공간에 다양한 정체성이 반영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이는 하나의 몸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정된 공간에 대한 관념이 유연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경험이 되었다.

칠판에 분필로 그렸다 지울 수 있는 특성은 공간에 다양한 정체성이 반영되었다 사라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작품 2】 마음의 바람

## 【작품 2】 마음의 바람

크 기 : 400x400x1500(mm)

재 료 : 유리, 천, 스텐, 나뭇잎, 조개껍질

제작연도 : 2009

제작과정 :

- 1) 유리판재로 집 형상을 만들고 불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유리를 샌딩한다.
- 2) 스텐을 이용해 좌대를 만들어 집 형상의 높이를 높인다.
- 3) 집 형상에 조개껍질, 나뭇잎을 각각 넣고, 반투명 천을 집 형상에 덮고 센서를 이용해 선풍기의 바람으로 집 형상의 천을 움직이게 한다.

본 작품은 외부의 영향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에 대한 작업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본인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나타낸다. 센서가 달린 선풍기는 관람자의 움직임에 작동하여 천의 민감한 반응을 얻어내 바람의 형상을 만든다. 외부라고 상정되는 관객에 의한 바람은 반투명한 천을 흔드는데 이것은 외부에 의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것은 창문에 걸린 커튼에서 따온 형상으로 창문을 통해 들어온 외부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어놓는 것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나약한 내면이 흔들리는 감정으로 느끼고 이를 시각화하였다. 사방이 막힌 유리집의 반투명성과 천에 덮여있으면서도 내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닫혀있으면서도 의미상으로 열려있음을 의미함으로 이것은 완벽한 외부와의 단절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나뭇잎과, 조개껍질의 오브제를 집 형상에 넣어둔 것은 외부의 빛, 바람, 바깥환경이 창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와 영향을 준 것의 존재를 보여준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애매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지만 ‘열려있음’으로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작품 3】 daydreaming

### 【작품 3】 daydreaming

크 기 : 500x1700x700(mm)

재 료 : 털실, 굵은 철사

제작연도 : 2008

제작과정 :

- 1) 굵은 철사를 절단하여 힘으로 휘어 곡선을 만들고 각각의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집 형상을 만든다.
- 2) 완성한 선재로 된 집 형상을 사이즈를 제어 검은색 털실로 뜨개질을 한다.
- 3) 집 형상에 뜨개를 이용한 검은 옷을 입힌다.
- 4) 집 형상의 끝부분을 벽에 있는 못에 걸어둔다.

본 작품은 공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의미를 형상화 하였다. 검은색 실을 길게 뜨개질한 형태로 언제든지 실을 이어나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점이 끝나지 않는 공상을 내포한다. 보통 잠자기 전의 캄캄한 밤에 눈을 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생성되는 생각에 잠기기 때문에 암흑을 의미하는 검은색으로 표현하였지만, 밤뿐만 아니라 눈을 감은 낮도 의미한다. 깊은 생각에 잠겨 눈을 뜨고 도 감은 것과 다름없는 현실을 제외시킨 현상인데 고민이나 생각이 많을 때 일어난다. 눈의 감음은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외부와 저항하고 그에 대해 떠올리고 고민하므로 외부와 내부는 단절을 통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마치 가래떡을 만드는 기계처럼 벽에서 줄줄이 흘러나올 것 같은 착시를 주는 형태는 시간에 따라 어둠이 계속해서 늘어날 듯한 착각과, 얼마동안이나 공상에 잠겨있었는지 파악할 수 없는 느낌을 주었다. 감정에 따른 집 형상의 과장되고 적극적인 변화는 공간의 유연한 관념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작품 4】 blue house

#### 【작품 4】 blue house

크 기 : 3000x3800(mm)

재 료 : 털실

제작연도 : 2007

제작과정 :

- 1) 세 가지의 털실을 이용해 거미줄 형상을 염두에 두고 뜨개질을 한다.
- 2) 완성된 거미줄 형상 끝에 낚시줄을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설치한다.

간단해 보이는 작업과정처럼 뜨개질 하는 행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다. 거미는 입에서 실을 직조해 집을 짓고 그 집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강한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집의 생성이 가능하다. 치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훼손되기 쉽고 그만큼 자주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 이동하는 횡단적 곤충이다. 사람들에게 집에 대한 관념이 고정적인 대상이라면 거미에게 집이란 유동적인 대상인 것이다. 거미줄 작업 시리즈는 뜨개질하는 행위부터 설치 과정과 특성이 거미집의 특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전시기간동안 전시하고 또다시 다른 공간에 전시하는 과정은 이러한 거미의 여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실이 가벼운 재료의 특성(경량성)상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제작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주로 해외나 지방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야말로 횡단적 곤충처럼 외부로 도주하는 욕망을 무한 표류할 수 있는 유연한 집이다. 이 작업은 본인의 어릴적 잦은 이사경험을 통한 집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준다.



【작품 5】 이동하는 집

## 【작품 5】 이동하는 집

크 기 : 300x300x800(mm)

재 료 : 사암, 스텐, 바퀴

제작연도 : 2009

제작과정 :

- 1) 사암을 그라인더를 이용해 집 형상으로 깎는다.
- 2) 세밀한 부분은 에어툴로 다듬고, 거친 부분은 사포면으로 표면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광을 낸다.
- 3) 바퀴와 손잡이를 붙일 부분을 표시하고 에어툴과 드릴을 이용해 구멍을 뚫는다.
- 4) 스텐으로 제작한 손잡이와 바퀴를 구멍 속에 넣고 에폭시를 이용해 부착한다.

본인의 집에 대한 관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처음으로 바퀴를 사용한 작업으로 바퀴를 부착하면서 집은 이동적인 성격을 가지며, 무거운 재료의 돌은 자신의 가만히 있으려는 본질을 잃는다. 손잡이를 잡고 이동시키는 관객의 체험으로 정주성을 가진 집과 돌은 설치위치가 바뀌는데 이는 만지면 안되는 작품에 대한 관객의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작품 6】 다른곳에 심겨지기 위한 준비

## 【작품 6】 다른곳에 심겨지기 위한 준비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포장밴드, 바퀴

제작연도 : 2011

제작과정 :

- 1) 포장밴드를 계획해놓은 길이로 자른다.
- 2) 자른 포장밴드 위에 펜으로 구멍 뚫을 위치와 접어야할 위치를 표시한다.
- 3) 표시된 부분에 칼집을 내어 구멍을 내고, 펀치를 이용해 접는다.
- 4) 각각 부위별로 구분지어 놓고 구멍이 뚫린 바닥이 될 부분에  
풀줄기가 될 접혀진 포장밴드를 끼워 넣는다.
- 5) 모든 조립이 끝나면 열로 마감하고 구멍을 뚫어 바퀴를 부착한다.

도로를 개발하기 위해 육중한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을 접하였다. 이장하지 않고 기둥을 절단한 것은 나무의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것은 나무라는 생명체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도시의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애정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착하기보다 사회생활을 위해 거치는 탈것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집 앞의 나무의 역사성과 관심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애정이 생략된 자연물은 이사 오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도시의 나무들은 주입되어 심어진 인위적인 인상을 벗어나기 힘들다.

사람들은 인위적인 자연에 길들여져 야생적인 자연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자연을 모르기에 자연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서 두려움을 이

겨내려 하고 있으나 오히려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도리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작업은 도시의 자연에 바퀴를 달아주면서 자율성과 야생성을 주고, 나무가 잘리지 않고 이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뿌리가 달려있지 않아 어디든 옮겨갈 수 있는 횡단적 욕망을 획득하였다. 재료로 쓰인 플라스틱밴드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이사를 가기 전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짐을 단단히 고정할 때 쓰였다. 재료자체에는 이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목적에서는 본래 이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재료로 만든 풀 역시 이동성을 가지게 되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옛날엔 풀이었던 짚을 꼬아 끈을 만들어 짐을 묶었다. 사물엔 고유한 성질이 있어 그 사물을 대체할 땐 유사한 물성을 찾아 사용하게 되는데, 끈과 풀의 묶는 성질 그리고 끈과 풀의 이동성은 플라스틱밴드로 풀 형상을 만드는 행위를 이어주는 지점이다. 다수의 작품의 배치를 통해 별판이 만들어지고 숲이 연상되는 작업을 통해 그 속에 사람들이 포함되고 필요에 따라 작품이 이동되어 길이 만들어지는 관객의 참여와 과정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자연을 정복하려고만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의 개입으로 자연과 사람의 동등한 권리와 수평적 관계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flow 【작품 7】

## 【작품 7】 flow

크 기 : 150x150x230(mm)

재 료 : 시멘트, 바퀴

제작연도 : 2011

제작과정 :

- 1) 한강의 강물을 사진 찍어 이를 참고하여 점토를 이용해 물 형상을 만든다.
- 2) 완성된 물 형상을 정확한 분할로 나누어 자르고 각각 석고를 뜬다.
- 3) 석고 몰드에 있는 점토를 제거하고 시멘트로 물 형상을 뜬다.
- 4) 시멘트가 굳으면 석고를 제거하고 바닥에 드릴로 구멍을 내고 바퀴를 부착시킨다. 마무리한 후 물의 표면이 될 부분에 페인트를 이용해 코팅시킨다.

본 작품은 물 형상에 바퀴를 부착해 물이 흐르는 성질을 시각화한 작업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그림자가 시멘트 바닥에 비춰지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착시를 주었다. 이 경험으로 시멘트라는 재료로 물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고 물 형상을 시멘트로 만들었다. 재단된 형상과 획일적 사이즈에서 현대인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자연물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척도가 생겼기 때문에 쉽게 구입하고 인공자연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강이 필요하면 땅을 파헤치고 물을 끌어다 강을 만들면 된다는 비환경논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청계천과 4대강을 떠올리게 한다. 물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성질을 가지는데 현대문명은 이들의 성질마저 바꾸어 속명처럼 흐르던 물은 인위적으로 길을 내어버린 곳으로 방향을 잃어 도시를 배회한다. 개발로 빚어진 강제적 이동에서 자유롭게 벗어나 흘렀으면 하는 바람으로 바퀴를 부착하였다.



【작품 8】 부유하는 돌

## 【작품 8】 부유하는 돌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시멘트, 바퀴, 철망, 굵은 철사

제작연도 : 2013

제작과정 :

- 1) 굵은 철사를 이용해 바위형상을 직조한다. 그 위에 철망을 감싸주어 시멘트가 붙을 수 있는 면을 만든다.
- 2) 시멘트를 물에 적절한 비율로 섞어 철망에 바른다. 어느 정도 굳으면 일정한 두께로 사방에 시멘트를 덮고 완벽히 굳기 전에 스크래치를 주어 돌의 질감을 준 후 바퀴를 부착시킨다.
- 3) 완벽히 굳으면 페인트를 이용해 표면을 코팅시켜 광택을 준다.

여행을 다니면 그 지방만의 특수한 땅과 돌을 만날 수 있다. 제주의 현무암은 제주만의 특색을 잘 보여주는 돌로 돌담을 쌓기도 하고 하루방이라는 조각을 만든다. 때문에 현무암을 보면 제주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도시화가 진행된 장소는 산업화로 인해 획일적인 특색을 보여준다. 특수성이나 지역성보다는 보편성과 획일성을 가지고 있어 도보에 깔린 바닥부터 건물외벽에 쓰인 석판재, 자연을 조성해놓은 장소 등 어딜 가나 하나같이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지명을 알지 못하는 장소에 가면 그곳이 어디인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표지판뿐인 것이다. 사람의 발밑에 땅이라고 인식되는 흙과 돌, 잔디 등의 자연물은 고향을 잃고 떠돌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의 발밑에 깔린 땅은 어디에서 건너 온지 모르는 유령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부유하는 돌>은 흙과 자갈, 돌, 바위를 포함하는 아이콘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땅에 대한 이미지이다.



【작품 9】 Monster Plant

## 【작품 9】 Monster Plant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포장밴드

제작연도 : 2011

제작과정 :

- 1) 포장밴드를 계획해놓은 길이로 자른다.
- 2) 잘린 포장밴드 위에 펜으로 구멍 뚫을 위치와 접어야할 위치를 표시한다.
- 3) 표시된 부분에 칼집을 내어 구멍을 내고, 펀치를 이용해 접는다.
- 4) 각각 부위별로 구분지어 놓고 구멍이 뚫린 바닥이 될 부분에 풀줄기가 될 접혀진 포장밴드를 끼워 넣는다. 모든 조립이 끝나면 열로 마감한다.

발달된 문명은 인간의 욕심을 반영한다. ‘파랑장미는 아름다울까?’ 라는 궁금증과 문명의 발달로 기술적인 측면이 혼합되어 이를 가능하게 한다. 블루장미의 꽃말은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DNA를 조작하여 사람들에게 꽃의 다양성을 선사하였지만 자연은 ‘길들이기’라는 문명화 과정에 편입되었다. 이러한 조작은 인간의 능력에서 벗어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로 변이가 진행된 동물과 식물들이 출현한다. 해괴한 해프닝을 넘어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Monster Plant>는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밝은 느낌을 주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미래의 환경에 대한 불안한 징조를 가지고 있다. 색깔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가 큰 이 작업은 소외된 자연을 바라봐 주길 바라는 이중적 의미도 같이 담겨있다. 도시 속을 걷게 되면 육중하고 위엄을 뽐내는 거대한 건물들에 가려진 자연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의 건물 옆이나, 건물 안에 설치된 이 작업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연의 존재를 재확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작품 10】 plan plant planet

【작품 10】 plan plant planet

크 기 : 가변설치

재 료 : 포장밴드, LED, 바퀴

제작연도 : 2012

제작과정 :

- 1) 포장밴드를 계획해놓은 길이로 자른다.
- 2) 잘린 포장밴드 위에 펜으로 구멍 뚫을 위치와 접어야할 위치를 표시한다.
- 3) 표시된 부분에 칼집을 내어 구멍을 내고, 펀치를 이용해 접는다.
- 4) 각각 부위별로 구분지어 놓고 구멍이 뚫린 바닥이 될 부분에 풀줄기가 될 접혀진 포장밴드를 끼워 넣는다. 모든 조립이 끝나면 열로 마감하고 구멍을 뚫어 바퀴를 부착한다.
- 5) 완성된 풀 형상 중심부에 LED를 삽입해 전선을 연결하고 코드를 뽑는다.

빛이라는 문명과 풀이라는 자연물이 결합해 예기치 못한 생성을 보여주는 작업이다. 때문에 시각적 즐거움도 주지만 자연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포함한다.

밤에도 밝게 빛나는 도시환경을 보면 아스팔트가 깔리고, 가로등이 주입되고, 건물주위엔 나무를 심어 놨다. 인공물인 가로등과 자연물인 나무는 같은 입장으로 도시에 나란히 주입된 것이다. 도시는 낮에도 밤에도 밝다는 것을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지 않고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문명화를 보여주는 아이콘으로써 겉보기엔 예쁘지만 그 이면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준다. 이 작업은 불을 밝힌다는 실용성 때문에 작품을 넘어 실용소품으로 쓰일 수 있어 감감한 방을 밝혀준다. 이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으로써 실용성을 처음 도입한 작업이다.

## IV. 결 론

사람은 경험적 존재로서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인격을 형성한다. 때문에 외부환경과의 소통과 관계는 중요하며 외부는 내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너’와 ‘나’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완벽하게 분리되어 타자가 되지만 서로 다르다는 점과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따라서 ‘나’와 ‘너’는 동등한 필드위에 나란히 서있는 것이 된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동등하다. 하지만 자연환경에 대한 지배적인 관념인 근대적 이분법적구조의 소통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통이 아닌 지배와 억압일 뿐이다.

본인의 연구에서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노마디즘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집과 자연물에 이동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통해 유목적 사유가 주는 탈주의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움직이지 않는 유목’을 통해 물리적 이동 없이 유목하는 정신적인 사유의 이동을 보여주었고, ‘움직이는 유목’을 통해 노마드의 횡단적 욕망을 보여주었다. 이동성은 새로운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었고 도시환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작품에 드러났으며 서열구조와 이항관계 없는 차이들만 존재하는 수평적인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 이면에서 자연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의문을 이끌어 내는 것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서서히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를 줄 것이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적인 관념에서 이분법적 구조를 서서히 중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도시에서는 자연공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므로 해결방안이 점차 다양해 질것이고 자연화와 도시화의 분배에서 자

연이 차지하는 자리가 점점 늘어나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앞으로 본인이 작업하는데 있어 더욱 집중해야 할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었으며, 앞으로 다양한 형식과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 열린 방향으로 작업을 모색할 것이다.

## 참 고 도 판



(도판 1) 다중인격, 칠판페인트, FRP, 분필, 100x110x150(mm), 2007, p.12



(도판 2) 무제, 시멘트, 천, 스텐, 400x400x1200(mm), 2008, p.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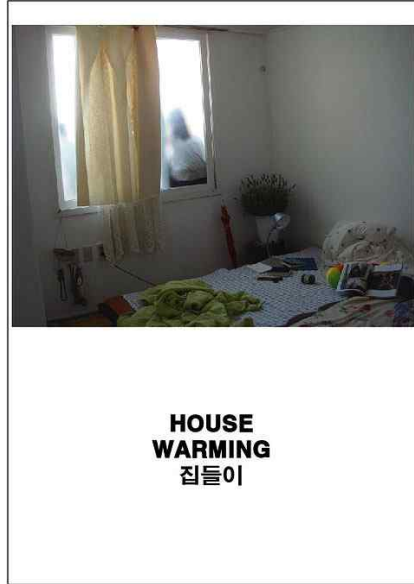


(도판 3) Floating Nest-japan, 털실, 3600x2500(mm), 2010, p.12



(도판 4) Floating Nest-집들이, 털실, 500x500(mm), 2010, p.12

(도판 5) Floating Nest-순천, 털실, 600x600(mm), 2013, p.12



(도판 6) 집들이, art book, 15x26(cm), 2010, p.12



(도판 7) 별판을 가지다 展 전시광경, 2013, p.12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고미숙 저, 「아무도 기획하지 않은 자유」, 휴머니스트, 2004
- 구자희 저,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 이광래 저, 「표류하는 미술, 미술가들」, 미술문화, 2007
- 이성희 저, 「무의 미학」, 새미, 2008
- 장시기 저, 「노자와 들뢰즈의 노마돌로지」, 당대, 2005
- 조용개 · 유영역 · 정철 공저 「환경철학의 이해」 신광문화사. 2003

### 2. 번역본

- 로지 브라이도티 저, 박미선 역, 「유목적 주체」, 여이연, 2004

### 3. 학술지

- 염윤정, <모바일 뮤지엄의 배경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영직, <폴드공간에서 나타나는 생태학적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4. 홈페이지 및 기타

- <http://blog.naver.com/galleryis?Redirect=Log&logNo=80188860112>  
이경선 전시비평문
- <http://ko.wikipedia.org> 위키백과

# ABSTRACT

## A Study of Nomadism's Expression through Experiences

- around my works -

Hong, Ji Hee

Dept. of Sculpture

Graduated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People's ideas are formed through their experiences and communication with external environment. Of the ideas formed by various experiences, there are the ideas which were formed long ago and have been considered as naturally reasonable ones. Such kinds of ideas are rarely changed and fixed, so many people frequently think that such ideas are right. Gilles Deleuze, a French philosopher, insisted on breaking this fixed schema and reconstructing the old concepts. Breaking the fixed ideas is associated with the nomadism's attitude refusing to stay in socially coded thinking ways and behavior ways.

This study raises a question about modern people's prevailing perspective on the Nature through my private works which was started from my experiences. Through the expression way returning the naturalism and the wildness to the Nature which became an instrument based on its relation with the nomadism, this study intended to pursue for the natural

environment's recovery and to give the enjoyment of escape given by the nomadic thinking.

.The mobility mainly seen in my work became a good material to project my internal world view, and was the hall way for me to meet a new land and took the role for me to have the desire for newness. This mobility assigned the mobile attribute to my works, so changed my identity and the essences of fixed things, and encouraged the cross-sectional desire.

This study was described in the passage of time around from the year 2007 when the house shape was first appeared in my works to current work as follows.

In the Chapter 1, Introduction, this study narrated the purpose and method of this study about my works.

In the Chapter 2, Main Discussion, the contents were narrated as follows.

1. This study explained the theoretical characteristics of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s nomadism and the ecology, and narrated the relevance between the nomadism and the ecology.

2. This study showed the nomadism's continual movement and escape through the 'not-moving nomad' and the 'moving nomad' based on my works, and analyzed the process assigning the mobility, and narrated the dual aspects of the mobility's meaning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3. In the section of work analysis, this study specifically narrated the work production process, used techniques and materials, its intention.

In the Chapter 3, Conclusion, this study summarized the contents and sought for the ways for my works to go further in the future.